

코로나19, 축산물 소비에도 큰 영향

소·돼지고기 가정 조리·간편식 늘어, 닭고기 배달 소비 비중 높아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국내산 축산물 소비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1회 이상 돼지고기를 먹는 소비자가 69.5%를 차지했고 그 뒤를 닭고기 55.1%, 소고기 44.9%가 있었다.



돼지 삼겹살 구이



소고기 스테이크

기 38.7%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닭고기 소비 방법으로 배달 이용이 늘었다는 응답은 42.3%에 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산물 구매 장소가 바뀌었다는 응

답은 31.9%를 차지했다. 응답자 가운데 한우보다 수입 소고기 소비가 증가했다는 답변이 3.4%P 높았다. 가장 큰 이유로 '가격(74.7%)'을 꼽았다. 소고기, 돼지고기를 소비할 때 가정 내 조리'와 '가정간편식/바로 요리 세트(12~15%)', 배달(9~11%) 순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닭고기는 '배달' 30.3%, '가정간편식

18.7%였으며, 인터넷 구매가 크게 증가(49.8%)한 대신 백화점 구매는 감소(19.2%)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마케팅 효율화와 축산물 생산 전략 고도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농축산물 유통 마케팅 전문가인 협성대 송정현 교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축산물 온라인 구매가 코로나19로 크게 늘었다"라며 "온라인 거래에 적합한 축산물 개발과 유통방법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가 38.7%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닭고기 소비 방법으로 배달 이용이 늘었다는 응답은 42.3%에 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산물 구매 장소가 바뀌었다는 응



국민연금, 연금문화 대상 수상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난 3일 한국연금학회에서 주관한 '2021년 연금문화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연금문화 대상은 한국연금학회 주관으로 국내 연금·고령화 제도 발전 및 은퇴문화 성숙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국내 공적연금 및 고령화 제도 발전 관련 다양한 연구과제를 발굴해 연금제도와 기금운용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단은 그동안 공적연금, 국민연금 재정추계 등의 주제로 공동세미나 주최, 연구원들의 학회 발표 등 활발한 활동으로 연금학계의 발전에 공헌했다. 또한 다중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격년으로 실시하는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와 연구 분야의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연구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노후 보장과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권문일 연구원장은 시상식에서 "연금과 제도의 학술적 연구와 공유가 복지정책 수립 및 지속가능성 제고에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연금제도와 기금운용 발전을 위한 연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윤상 기자

'창립 52주년 기념 정기예금 특판'

전북은행, 17일까지 진행... 가입금액 최대 5억 이하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창립 52주년 기념 정기예금 특판이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창립 52주년 기념 정기예금 특판'을 실시한다. 특판 예금의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이며 기간은 12개월, 14개월로 금리는 최대 연 2.0%(우대금리 연 1.1%포함)이다. 판매 한도는 520억원으로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창립 52주년 기념 정기예금 특판은 고시금리에 기본우대금리 12개월 연 0.6%, 14개월 연 0.8% 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로 가입

하거나 종이봉장 미발행 시 연 0.1%, 마케팅 동의고객 연 0.1% 자동해지 등록고객 연 0.1% 등 추가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창립 52주년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담은 정기예금 특판을 준비했다"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jbank.co.kr)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1588-4477)에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형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 성과 공유

도내 9개 참여기업 대표자 청년근로자들 성공 사례 발표 커뮤니케이션 향상 특강도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전북형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지난 3일, 4일 이틀간 남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용 이하 경진원)은 '전북형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성과 공유회를 지난 3일, 4일 이틀간 남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인 '전북형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디지털/ICT 분야 기업들의 위기대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도내 140여개 기업에 170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도내 9개 참여기업 대표자와 청년근로자들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공유하였고,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위한 특강, 소통과 교류의 시간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한편, 2021 청년친화 일자리 매칭사

업 성과공유회와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실시간 유튜브(전북 Job's)로 중계하여 행사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과 청년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기업과 청년들의 호평을 받았다. 성과공유회 발표자로 나선 더편한정보통신의 김사무엘 대표는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우

정재호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유임

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장에 장경민 부분부장

정재호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이 유임됐다. 또한, 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장에 장경민 농협경제지주 전북지역본부 부분부장이 임명됐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 1일자 인사를 단행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에 유임된 정재호 본부장은 원주 출신으로 전라교과와 전주대 한문교육과를 졸업, 농협중앙회에 입사 한 후 중앙본부 농업정책보충부 중앙본부 기획실 농협은행 마케팅전략팀에 근무하며 실무경험을 쌓은 뒤, 무주군 지부장, 농협중앙회



정재호 본부장



장경민 부분부장

인사노무국장, 농협은행 인사부장, 농협중앙회 인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장에 임명된 장경민은 입사 본부장은 입사 관촌 출신으로, 전주 신홍고, 원광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전북대 회계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농협에 입사한 뒤로 전주완주시군지부, 전북지역본부 경제사업부, 전북지역본부 기획총무팀, 전북도청지점 부지점장, 전북도교육청지점장, 군산중앙로지점장, 순창군지부장 등을 지냈다. /김윤상 기자

이달 초 김장비용, 4인가족 기준 33만1000원

지난주보다 1.1% 하락 가을배추 출하 등 힘입어

올해 김장이 한창인 가운데 12월 초 4인 가족 기준 김장비용은 33만1,356원으로 조사됐다. 지난주인 11월 25일보다 1.1% 하락한 금액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김장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13개 품목에 대해 전국 19개 지역의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진행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김장비용은 8.5%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양념에 쓰이는 고춧가루, 대파, 생강은 올해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 대비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김장의 주재료인 배추는 재배면적 감소와 무름병 피해로 공급량이 감소하며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나 12월에 접어들어 김장비용이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다. 가을배추 출하가 본격화되고 정부 비축물량 방출이 이어지며 배추 무, 고춧가루 등 주요 품목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특히, 배추는 가을배추 주 출하자인 해남 지역의 작황이 양호해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 김장재료에 대한 가격정보는 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www.kamis.or.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매일 공표하고 있어 김장비용에

대한 정보는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주간 일몰 장보기 김장 특집호'에서 이번주 거래동향, 다음주 전망, 중·대형유통업체 할인행사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김장재료 수급안정과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배추, 간파 등 주요 김장재료류의 공급을 확대하고, 농축산물 할인쿠폰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김장철을 맞아 블로그(blog.naver.com/gr22nd)를 통해 10일까지 '우리집 김장김치 자랑하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장김치 비법 레시피 공유, 김장 인증샷 찍기 이벤트를 통해 김장 문화 확산 등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 임업진흥원과 귀산촌인 노후 지원 '맞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난 3일 귀산촌을 준비하는 국민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교류를 통해 국민연금과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귀산촌인을 지원하는 교육 아카데미에 노후준비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관계기관 연계서비스를 통해 노후준비교육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활성화 및 기타 공동 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도 서로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실시하고 노후준비 전문인력 양성,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109개 지사에서는 노후준비 4대 영역(재무·건강·대인관계·여가)을 중심으로 한 노후준비 종합진단 및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 임업진흥원과 귀산촌인 노후 지원 '맞손'

자산관리가 한번에 꼭!... 마이데이터 서비스

만 19세 이상 농협고객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이 상호금융권 유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농협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자산관리, 지출분석 등 금융생활 맞춤형 서비스를 시작한다. 특히, '비이농가'는 농업인 조합원 특화 서비스로 농업경영분석, 영농캘린더 등이 제공된다. 만 19세 이상 농협고객이면 누구나 'NH콕뱅크' 또는 'NH뱅크' 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오는 15일까지 NH콕뱅크에서 가입하는 고객 2만명 선착순은 농협 계열사 및 다양한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NH포인트' 1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농협상호금융 공식 유튜브 채널(NH농협)에 게시된 배우 임시란, 프로골퍼 유현주 등이 함께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광고에 기대평을 남겨준 추첨을 통해 임시란 카카오톡 이모티



콘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정재호 본부장은 "상호금융권 유일의 마이데이터 사업으로서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은 물론 농업인 특화 서비스를 통해 농협상호금융만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통시장 전기안전 지원 공로 인정

전기안전공사, 대통령 단체표창 수상받아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지난 3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회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기업·기관 최고인사인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받았다. 전통시장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쳐오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안전관리 제도 개선과 전기설비 규정 강화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다. 또한, 전통시장 맞춤형 예방점검과 전기안전 캠페인을 전개하며 전통시장 안전사고 예방과 전기안전에 관여한 공로로 인정받았다. 한편 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를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등에 동참해 전기설비 무료안전 컨설



팅과 점검을 지원한 바 있다. 박지현 사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공사의 정책이 인정받은 것 같아 뜻깊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책임있는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권장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 및 검진한 유충·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자)의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및 재발생지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선단지 지역의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기타 발생지역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속하는 방

식으로 진행한다. 단속기간은 8일까지이며, 전라남도 순천시, 경상남도 하동군 진주시, 거창군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과 병행해 산림 내 불법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권장현 서부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이 인위적으로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권장현)은 대형산불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해 관내 산불취약 지역 5개소 90ha에 대해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은 산불취약 지역의 소나무류의 단속을 산불에 강한 활엽수림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월·가자치기·산불수집 및 하층식생 관리 등을 통해 산불 내 연료물질을 감소시켜 산불의 확산을 막기 위한 숲가꾸기 방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